

문화광장



양 건  
건축학 박사·제주공공건축가

올해 여름의 시작은 역대급 장마기간을 기록하더니, 가을의 문턱에선 일주일 간격으로 때서온 태풍이 올라온다. 우리들의 일상은 지구온난화의 위험을 있고 살다가도 혹독한 기상이변 현상이 나타나면, 새삼 살아있는 생명체로서의 지구, 가이아(GAIA)가 중병을 앓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세계의 움직임은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UNFCCC)'가 중심이라 할 수 있다. 1992년 브라질 리우협약을 시작으로, 1997년 교토 의정서에는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구체

살아있는 지구, 가이아(GAIA)에 그린뉴딜로 답하다

적으로 정해졌다. 교토협약의 만료시점인 2020년에 앞서, 2015년 파리회의에서는 산업화시대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상승 2°C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하자는 목표설정과 각국의 '국가결정기여(NDC)'를 합의했다. 우리나라도 2030년 온실가스배출 전망치(BAU) 대비 37%를 감축할 것으로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 OECD 국가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 1위 등 '기후 악당 국가'의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불명예의 상황 속에서 정부가 최근 경기부양책으로 내세운 '한국판 뉴딜사업' 중 '그린뉴딜' 정책은 지난 정부가 시행했던 '녹색성장'의 개선안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린뉴딜 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약 74조 원을 투입해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전환,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핵심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 감축하고, 일자리 66만개를 창출한다는 청사진을 내놓고 있다. 또한 그린뉴딜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단거리 처방을 넘어서서, 세계적인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 1945)이 제안한 것처럼 3차 산업혁명 시대의 진입을 위한 거시적 전략으로서도 유의미하다. 세부 사업 중에는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17%를 점유하고 있는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시행된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살펴보면, 준공 후 15년 이상되고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2년간 6800억을 투입해 매년 1000동의 리모델링하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별 총괄기획가를 위촉하고, LH공사와 협력해 전반적인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그린뉴딜 정책에 쏟는 정부의 노력이 다소 조급한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원론적인 측면에서 공감대가 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정책에 비교해, 제주도는 '탄소제로섬'을 천명했으니 이미 그린뉴딜 정책을 앞서 시행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에너지 분야의 집중도가 높아 도시·건축 부문 정책과의 균형 있는 조정이 요구된다. 제주의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능동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라 할 수 있다. 생명체로서의 지구, 가이아의 살아 있음은 항상성 유지를 위한 자기조정기능에서 비롯된다. 가이아 이론으로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뜨거운 체온을 내리기 위해 원인균인 인간개체수를 조절하는 면역체계가 작동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 깨끗해진 하늘은 오히려 가이아가 인류에게 보내는 경고가 아닐까한다.

사설

가장 '우울한 추석', 슬기롭게 맞자

올 추석은 온 가족과 이야기 꽃을 피우는 즐거운 명절이 아닌 '우울한 명절'로 다가옵니다. 보름 앞으로 온 추석 고향가는 벌써부터 비상이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 추석연휴기간 방역도 큰 우려를 낳아 가족이 함께 하거나 나들이 등을 최대한 자제해야 할 명절이 될 상황입니다. 추석을 맞는 주부들 심정은 더 타들어갑니다. 올해 봄철 이상 저온과 역대 최장기 장마, 연이은 3개 태풍 등 최악의 기상여건으로 농산물 가격 폭등을 불러와 차례상 비용이 크게 상승중입니다. (사)한국물가정보 조사결과 올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비용을 전년 대비 전동시장 16.5% 오른 27만 500원, 대형마트 24.7% 오른 40만 4730원으로 각각 나왔습니다. 이래저래 우울한 명절이 될 공산이 큼니다. 그럼에도 최소한의 일시적 운영중지를 다음달 5일까지 연장기로 했습니다. 당초 14일 종료 예정이던 공공시설 일시 운영 중지조치가 추석연휴 감염확

산 예방을 위한 조치입니다. 추석 피우는 즐거운 명절이 아닌 '우울한 명절'로 다가옵니다. 보름 앞으로 온 추석 고향가는 벌써부터 비상이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 추석연휴기간 방역도 큰 우려를 낳아 가족이 함께 하거나 나들이 등을 최대한 자제해야 할 명절이 될 상황입니다. 추석을 맞는 주부들 심정은 더 타들어갑니다. 올해 봄철 이상 저온과 역대 최장기 장마, 연이은 3개 태풍 등 최악의 기상여건으로 농산물 가격 폭등을 불러와 차례상 비용이 크게 상승중입니다. (사)한국물가정보 조사결과 올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비용을 전년 대비 전동시장 16.5% 오른 27만 500원, 대형마트 24.7% 오른 40만 4730원으로 각각 나왔습니다. 이래저래 우울한 명절이 될 공산이 큼니다. 그럼에도 최소한의 일시적 운영중지를 다음달 5일까지 연장기로 했습니다. 당초 14일 종료 예정이던 공공시설 일시 운영 중지조치가 추석연휴 감염확

열린마당

벌초, 이것만은 꼭 지켜라



김 성은  
제주소방서 연동119센터

야생진드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풀독이나 쏘까가무시병 등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수 있다. 셋째, 향수나 화장품, 과일 등 강한 향으로 벌을 자극하지 말자. 짝짓기 시기의 벌은 공격성이 높아지며, 예민해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작업 중 벌집을 건드렸을 경우에는 20~30m 벗어나고, 벌에 쏘일 경우에는 피부에 박힌 침을 카드와 같은 것으로 긁어 제거하고 깨끗한 물을 이용해 씻은 뒤 얼음찜질을 한다. 두드러기나 호흡곤란 등 과민성반응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넷째, 뱀이 먼저 주위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자극하지 말자. 작업 전 나뭇가지나 지팡이 등을 이용해 주위에 뱀의 유무를 확인하고, 지면을 치면서 뱀이 달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뱀에 물렸을 경우에는 독이 퍼지지 않도록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심장보다 낮게 위치하도록 한다. 둘째,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입어 피부를 보호하자. 작업 시 덥더라도 옷으로 피부를 보호해 풀의 독성과

야생진드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풀독이나 쏘까가무시병 등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수 있다. 셋째, 향수나 화장품, 과일 등 강한 향으로 벌을 자극하지 말자. 짝짓기 시기의 벌은 공격성이 높아지며, 예민해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작업 중 벌집을 건드렸을 경우에는 20~30m 벗어나고, 벌에 쏘일 경우에는 피부에 박힌 침을 카드와 같은 것으로 긁어 제거하고 깨끗한 물을 이용해 씻은 뒤 얼음찜질을 한다. 두드러기나 호흡곤란 등 과민성반응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넷째, 뱀이 먼저 주위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자극하지 말자. 작업 전 나뭇가지나 지팡이 등을 이용해 주위에 뱀의 유무를 확인하고, 지면을 치면서 뱀이 달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뱀에 물렸을 경우에는 독이 퍼지지 않도록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심장보다 낮게 위치하도록 한다. 둘째,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입어 피부를 보호하자. 작업 시 덥더라도 옷으로 피부를 보호해 풀의 독성과

뉴스-in

코로나19가 도청 민원실 바꾸고 있다

“코로나 감염 예방 만전을”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청 민원실 민원창구 및 주민상담실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 민원실 민원창구는 업무 특성상 '담당 공무원과 불특정 다수의 민원인 간 접촉이 많아 코로나19 감염 예방 대책이 필요한 상황. 도관계자는 "투명 가림막은 아랫부분에는 서류를 주고받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민원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면서 "민원실 내 열화상카메라와 손소독제 비치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은지기자

항공편 체험 상품인 '제주 가상출국여행 알리버드 프로모션' 상품이 지난 11일 출시 4분 만에 완판.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이번 상품에는 코로나19 사태 종료부터 1년 이내 사용 가능한 방한 양복항공권이 포함돼 실제 수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현석기자

제주 가상출국여행 인기

○...코로나19 여파로 해외여행이 제한된 상황에서 대만 시장을 타겟으로 한 이색적인 한국여행 관광 상품이 현지에서 인기. 14일 한국관광공사 타이베이 지사에 따르면 제주 상공을 여행하는

“학생 예방 집중 면밀하게”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14일 주간기획조정회의에서 학생과 교직원 대상 인플루엔자 접종을 빈틈없이 진행해달라고 당부. 이 교육감은 이날 "9월 22일부터 학생 우선으로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이 이루어진다"면서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사전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학생·교직원들이 예방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의료·방역당국, 학교 현장과 협력하길 바란다"고 언급. 이 교육감은 또한 "가능하면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자가격리 항목에 포함해주시 바란다"고 언급. 전선희기자

기재부는 대체 누굴 위해 면세점 내주나

기획재정부의 행태가 가관입니다.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이 납득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주도민들은 더 이상 면세점이 들어와선 안된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는 대기업 면세점을 늘리지 못해 안달이 났습니다. 도민들의 철회 요구에도 기재부는 대기업 면세점을 추가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이 기재부를 상대로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철회 관련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우 의원은 대기업 면세점의 허가 결정을 원점 재검토하고 해당 지역과 총동원 통해 보세관매장제도운영위원회가 논의를 거쳐 서울과 제주에 특허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위원회 결정

사항의 철회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과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 초래 등의 우려가 있다며 철회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제주도민들이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를 왜 반대하겠습니까. 대기업 면세점이 제주에 들어와봐야 별 도움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와 도의회가 기재부와 관세청 등에 철회를 촉구한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도내 상공인들과 시민단체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지역상권이 더욱 위축되고 교통난까지 가중시킬게 뻔한데 누가 반기겠습니까. 도대체 기재부는 누구를 위해서 대기업 면세점을 내주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도민 의견'보다도 '정책 신뢰도'를 중요시 여긴다는 오만함까지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도민들의 더 큰 반발을 자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기업의 기재부'가 아니라면 지역사회의 여론을 더 이상 깔아뭉개선 안됩니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 고**  
양대식 아버지 제주양공영우(향교 훈장·향년 78세)께서 서기 2020년 9월 14일 06시 03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0년 9월 15일(화요일)  
▶발인일시: 2020년 9월 16일(수요일) 오전 7시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2빈소  
▶장 지: 양지공영→제주시 공설공동묘지  
부인 장인수  
아들 양대식 며느리 이진화  
딸 양성순 사위 이동규  
희순  
손 양은서 외손 이건호  
진호  
보미  
※ 연락처 : 양대식 010-5218-3043  
양성순 010-7649-1119

**감사의 말씀**  
금번 저희 아버님(신천강공 향일)의 장례시에 바쁘신 중에 도 정중하신 조의를 베풀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황망중이라 일일이 찾아뵈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오며 우선 지면을 빌어서나마 머리숙여 예를 갹음합니다.  
2020년 9월 15일  
부인 김순화  
아들 강규만  
기영  
딸 강영지  
영아

**벌초**  
전문벌초 대행업체  
직통 T. 010-3692-4898  
사무실 713-4898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신에 이분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클  
미국식품의약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소지 선출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의료 안내**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332-중-3524호  
동구치과 의원  
DONGGU DENTAL CLINIC  
일요일도 정상 진료합니다.  
원장 신동구  
중앙신협(신축) 2층 동구치과 의원  
제주대 제주중앙여고 제주지방병원  
제주시 이도2동 2007-8 (중앙여고 입구 맞은편 중앙신협 2층)  
756-2833